

아동의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Basic Life Habits and Social Competence

엄세진(Se Jin Eom)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basic life habits and social compet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6 children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s, Cronbach's α 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 (1) Girls were healthier than boys and they were more independent than boys. (2) Girls were more trustworthy, diligent, sociable, and observant of ethics and rules than boys. (3)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basic life habits and social competence. (4) Social compete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children's basic life habits.

Key Words : 기본생활습관(basic life habits),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건강(health), 자율(independence).

I. 서 론

유아기와 달리 아동기는 사회적 환경이 훨씬 넓어지고, 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과 접촉의 범위도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점차 확대되어 간다. 특히 아동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가 처한 사회적 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Asher & Coic, 1990). 이처럼 아동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소속해 있는 사회집단의 행동양식, 가치관, 규범과 같은 문화를 학습하고 내면화하

여 자기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사회화(socialization)라고 한다(William & Joseph, 1996). 즉, 사회화는 개인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고유한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인 동시에 사회에서 면면히 이어져오는 문화적 유물을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화는 어느 한 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이나 경험의 유형을 발달시켜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일상 생활에서 예절바르게 행동하고 질서를 지키며 기

¹⁾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 Jin Eom,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Korea
E-mail : sjeom@korea.ac.kr

본생활습관과 태도를 기르며 둘째,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기초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 셋째, 나와 다른 사람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협력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며 넷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아끼며 보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교육부, 2000).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행동은 줄어들고 점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규범, 가치관이나 행동방식을 익히게 된다.

먼저, 개인이 사회적 자아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행동규범을 몸에 익히고 이를 습관화하는 일 즉,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기본생활습관이란 개인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익혀서 습관화하는 것으로,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진 사회 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적응하며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이원영 · 방인옥 · 박찬옥, 1992). 기본생활습관의 영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과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하는 일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거의 되풀이 되는 행동으로 먹는 것, 잠자는 것, 배설과 청결, 휴식과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사회구조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을 익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 1997). 따라서 기본생활습관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문화-보편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 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화-특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이은화 · 김희진 · 이승연, 199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5).

지금까지 수행된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연구들(김혜영, 2001; 박명순, 1999; 표옥자, 1996)을 살펴보면 초기의 상당수 연구들은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그리고 영속성이 있으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 또는 민주 질서의 구축은 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생활습관은 가정과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아동은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모든 유아가 유치원을 다니는 것은 아니다(이미선, 2002; 황인옥, 2003). 다시 말해서 가정과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 속에서 체계적인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시기는 바로 아동기로,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연구가 중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는 인지적으로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을 익히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생활습관의 이해가 어려운 유아들을 대상으로 외형적 행동만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피상적 교육을 통해서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5; Kuhmerker, 1991). 이에 반해 아동기는 인지적으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지향이 가능해지고,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Gelman, 1969; Inhelder & Piaget, 1958). 따라서 기본생활습관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사회적 능력이란 타인과 유능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 그 기술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Sarason, 1981). 또한 Elias(1997)

는 사회적 능력이란 어떤 사회적 과제나 긍정적인 발달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나 지역, 상황에 따라 그 실질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기술, 태도, 능력, 감정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O'Malley(1977)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처럼 사회적 능력은 기본생활습관처럼 각 사회마다의 근본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과 같은 개념으로 사회성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기술,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 등이 통용되고 있다(이은혜, 1995; Chen, Rubin, & Sun, 1992).

일반적으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인간성이 바로 사회적 능력이며,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요인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학습경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회적 능력은 대인관계에서의 사교성, 협동성, 친절성, 모방성, 소통성, 대인순응성, 관용성 등과 관계가 있는 반면에 고립, 방관, 비활동적 성격과는 반대된다(이상노, 1979). 따라서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협동적이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대인적응성이 강하다(정범모, 1973).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 가정 환경, 학교 환경, 그리고 또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정은 최초로 사회화를 경험하는 곳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애정표현을 잘하며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줄 때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유능한 경향을 보였다(박주희 · 이은혜, 2001).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자녀와 관련된 가사활동에 즐거이 참여할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웅 · 이인수, 1998). 부모 변인 외의 다른 가정 환경 변인으로는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출생순위, 형제 관계 등이 있다. 학교 환경 변인에서는 교사의 역할, 능력, 태도, 인성 등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이명희, 2005). 즉, 교사는 아동에게 있어 절대적인 존재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은 또래 관계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나 행동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규범을 배워 나가게 된다(Rubin, Bukowski, & Parker, 1998). 즉, 또래 집단은 서로에게 역할 모델, 강화자, 사회적 비교 집단, 그리고 사회적 지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자, 2003).

한편,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징을 살펴보면, 또래 집단에 대하여 민감성을 보이거나, 집단의 리더에게 자발적 동조 현상을 보인다. 반면에 자신보다 힘이 약한 나이 어린 아동이나 동년배 아동을 괴롭히며, 학업이나 집단활동에서 경쟁 등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정원식, 1991).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 아동기는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적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되며, 이는 사회적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인 바로 '사회화'라는 큰 맥락 안에서 본질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기본생활습관은 유아기에만 강조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엄세진 · 정옥분, 2006). 그러나 유아기에는 주로 가정 안에서 익

려야 할 개인 중심의 내용으로 기본생활습관 하위 덕목이 구성되는 반면에, 아동기에는 가정생활은 물론이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 보다 더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본생활습관은 문화-특수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생활습관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기본생활습관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유아기와 달리 아동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행동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김병국, 2003; 안미영, 2004)에 따르면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숙(2000)은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후 강규영(2004)은 기본생활습관을 토대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기본생활습관은 인성교육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인성교육은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처럼 유아기에 시작된 기본생활습관은 평생을 통해 지속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나 가치, 성공감 등의 경험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정금자, 2001). 비록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 간에 관계를 밝힌 연구는 전무하지만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 둘 간에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먼저 인구학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성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

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은 둘 다 사회화 속에서 발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 향상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적 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이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강남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첫째, 아동은 8세 이상 되어야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자기의 유능성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가치에 대한 견해를 구축, 자기지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Byrne, 1996; Harter, 1982; Harter & Pike, 1984; Wylie, 1989). 둘째,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장된 자기 평가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최고도에 달하고 그 이후에 감소되어 안정된 양상을

<표 1>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조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대상자 수 (%)	
성별	남	161(50.9)	
	여	155(49.1)	
학년		남	여
	3학년	39(24.2)	34(21.9)
	4학년	41(25.5)	44(28.4)
	5학년	33(20.5)	39(25.2)
	6학년	48(29.8)	38(24.5)
출생 순위	외동	35(11.1)	
	장남·장녀	122(38.6)	
	둘째 이하	152(48.1)	
	무응답	7(2.2)	
부모의 연 령		부	모
	20대	0(0.0)	1(0.3)
	30대	67(21.2)	155(50.0)
	40대	226(71.5)	150(47.5)
	50대 이상	22(6.9)	5(1.6)
	무응답	1(0.3)	5(1.6)
부모의 교 육 수 준		부	모
	중졸이하	14(4.4)	19(6.0)
	고졸	132(41.8)	180(57.0)
	전문대졸	19(6.0)	16(5.1)
	4년제 대졸	77(24.4)	57(18.0)
대학원졸 이상	51(16.1)	19(6.0)	
	무응답	23(7.3)	25(7.9)
부모의 직 업		부	모
	생산기능직	42(13.3)	9(2.8)
	서비스직	40(12.7)	47(14.9)
	판매직	67(21.2)	50(15.8)
	사무직	103(32.6)	43(13.6)
	행정관리직	20(6.3)	3(0.9)
	전문기술직	29(9.2)	14(4.4)
	기타	9(2.9)	3(0.9)
	주부	0(0.0)	138(43.7)
	무응답	6(1.9)	9(2.8)

보이기 때문이다(Stipek, 1981). 따라서 유아와 달리 규범들을 내면화한 후 행동하며 자기 스스로를 지각할 수 있는 학년, 즉 3학년 이상을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

회수된 자료는 332부(회수율 94.9%)였으나, 이들 중 부실하게 기재되거나 패턴화된 응답을 한 자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316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의 구성

1)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을 측정하기 위해 엄세진과 정옥분(200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리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동 전통 문헌 고찰, 국내외 기본생활습관 문헌 고찰, 그리고 사회적 인식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이 척도는 7개 하위 요인(질서 9문항, 정리정돈 7문항, 신의와 책임 8문항, 예절 8문항, 건강 5문항, 청결 4문항, 자율 5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식('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1점)', '가끔 그렇게 한다(2점)', '자주 그렇게 한다(3점)', '항상 그렇게 한다(4점)')으로 되어 있다.

먼저 '질서' 요인은 나의 안녕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설정해 놓은 공공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을 말한다. '정리정돈' 요인은 가정과 학교에서 내 소유물과 타인의 소유물 나아가 우리 모두의 소유물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물건과 자기 주변을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동을 뜻한다. '신의와 책임' 요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타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절' 요인은 타인을 예우하기 위해 때와 장소에 맞는 인사법과 언행을 구사하며 또한 표리부동하지 않고 진실된 행동을 말한다. '건강' 요인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청결' 요인은 손발씻기, 이닦기, 쓰레기 빠르게 처리하기 등을 통해 자기 몸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환경을 보존하는 등 깨끗한 생활태도를 갖는 행동을 말한다. 끝으로 '자율' 요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서 해 나가는 행동을 가리킨다.

엄세진과 정옥분(2006)의 기본생활습관 척도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리고 하위요인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끝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7개 하위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36.7%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질서 .80, 정리정돈 .80, 신의와 책임 .77, 예절 .75, 건강 .74, 청결 .76 그리고 자율 .73으로 나타났으며, 3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8~.78로 나타났다.

2)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측정에 사용된 질문지는 김학수와 이윤수(1975)가 제작한 검사도구를 기초로 아동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항의 수와 측정영역을 간소화시킨 김계봉(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신뢰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교성, 준법성 등 6개 영역, 각각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은 5점 리커트식('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1점)', '가끔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으로 되어 있다.

먼저 '신뢰성'은 솔직하고 정직하여 남에게 믿음을 주고 무슨 일이든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감정이나 의지를 말한다. '지도성'은 생산성 있게 일을 조직하여 추진하고 결정해 나가는 능력과 발전적이며 진보적으로 집단을 이끌어 가는 감정이나 의지를 말한다. '근면성'은 부지런하며 어려운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한번 계획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수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감정이나 의지이며, '안정성'은 정서적 안정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합리적이고 침착하게 일을 추진하고 객관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교성'은 여러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참여적이고 언제나 희망에 차 있으며 매력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마지막으로 '준법성'은 무슨 일이든 계획적이고 책임감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는 감정이나 의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신뢰성 .70, 지도성 .77, 근면성 .84, 안정성 .63, 사교성 .80, 준법성 .79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아동학 박사 3인과 초등학교 교장 2인에게 의뢰하여 적절치 못한 문항들을 수정·보완하였다.

3. 연구절차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 및 문제점

들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질문지를 가지고 서울시 소재하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교사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시의 주의점을 전달한 후 담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성별에 따라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성 발달 각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Pearson의 상관분석으로 살펴보았으며, 기본생활습관으로 사회적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분석방법(stepwise)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적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의 수준을 살펴보면, 청결($M=3.25, SD=.5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표 2>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인 경향 (N=316)

기본생활습관	M	SD	사회적 능력	M	SD
질서	3.01	.53	신뢰성	4.00	.73
정리정돈	2.77	.65	지도성	3.23	.91
신 의 와 책 임	3.01	.49	근면성	3.72	.94
예절	3.11	.53	안정성	3.89	.76
건강	3.09	.57	사교성	3.74	.88
청결	3.25	.59	준법성	3.91	.83
자율	2.88	.57	전체	3.75	.68
전체	3.02	.45			

로 예절($M=3.11, SD=.53$), 건강($M=3.09, SD=.57$), 질서($M=3.01, SD=.53$)와 신의와 책임($M=3.01, SD=.49$), 자율($M=2.88, SD=.57$), 그리고 정리정돈($M=2.77, SD=.65$) 순으로 기본생활습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청결과 예절, 그리고 건강 등의 기본생활습관은 보다 잘 실천하는 데 반해 자율과 정리정돈 등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능력의 수준을 살펴보면, 신뢰성($M=4.00, SD=.73$)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준법성($M=3.91, SD=.83$), 안정성($M=3.89, SD=.76$), 사교성($M=3.74, SD=.88$), 근면성($M=3.72, SD=.94$), 지도성($M=3.23, SD=.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아동들은 신뢰성과 준법성 등은 잘 지키는 데 반해 지도성은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적 능력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인 중 건강과 자율 요인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3〉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에 있어서의 성차

기본생활습관		질서	정리정돈	신의와 책임	예절	건강	청결	자율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 자 (n=161)	2.98 .51	2.72 .66	2.96 .49	3.11 .54	3.02 .59	3.24 .59	2.81 .61	2.98 .45
	여 자 (n=155)	3.04 .55	2.81 .63	3.05 .49	3.11 .52	3.16 .53	3.26 .58	2.96 .51	3.06 .45
	<i>t</i>	-.96	-1.25	-1.63	-.01	-2.21*	-.26	-2.47*	-1.57

**p*<.05

여아가 남아보다 건강과 자율을 보다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의 성차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사회적 능력 전체 요인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신뢰성, 근면성, 사교성, 그리고 준법성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여아가 남아보다 신뢰성, 근면성, 사교성, 그리고 준법성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의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전체와 사회적 능력 전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79, *p*<.01). 또한 기본생활습관 전체는 사회적 능력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기본생활습관 전체는 근면성(*r*=.73, *p*<.01), 신뢰성(*r*=.68, *p*<.01), 준법성(*r*=.64, *p*<.01), 안정성(*r*=.63, *p*<.01), 지도성

〈표 4〉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의 성차

사회적 능력		신뢰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교성	준법성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 자 (n=161)	3.91 .75	3.16 .90	3.59 .94	3.84 .78	3.62 .91	3.78 .81	3.65 .68
	여 자 (n=155)	4.08 .70	3.30 .93	3.84 .93	3.93 .74	3.86 .84	4.05 .83	3.84 .67
	<i>t</i>	-2.05*	-1.39	-2.39*	-1.11	-2.43*	-2.82*	-2.54*

**p*<.05

〈표 5〉 아동의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N=316)

		기본생활습관							
		질서	정리정돈	신 의와 책 임	예 절	건 강	청 결	자 율	전 체
사회적 능력	신뢰성	.597**	.519**	.632**	.564**	.553**	.539**	.425**	.679**
	지도성	.498**	.527**	.583**	.448**	.439**	.382**	.436**	.589**
	근면성	.625**	.615**	.632**	.590**	.601**	.496**	.540**	.729**
	안정성	.567**	.508**	.574**	.541**	.471**	.452**	.448**	.631**
	사교성	.471**	.470**	.596**	.492**	.383**	.428**	.463**	.585**
	준법성	.613**	.492**	.610**	.509**	.615**	.436**	.349**	.641**
	전 체	.693**	.648**	.748**	.647**	.630**	.561**	.552**	.794**

** $p < .01$

($r = .59, p < .01$), 그리고 사교성($r = .59, p < .01$)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인과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서는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 중 근면성($r = .63, p < .01$), 준법성($r = .61, p < .01$), 신뢰성($r = .60, p < .01$), 안정성($r = .57, p < .01$), 지도성($r = .50, p < .01$), 그리고 사교성($r = .47, p < .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정리정돈은 근면성($r = .62, p < .01$), 지도성($r = .53, p < .01$), 신뢰성($r = .52, p < .01$), 안정성($r = .51, p < .01$), 준법성($r = .49, p < .01$), 그리고 사교성($r = .47, p < .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보였다. 신의와 책임은 근면성($r = .63, p < .01$)과 신뢰성($r = .63, p < .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준법성($r = .61, p < .01$), 사교성($r = .60, p < .01$), 지도성($r = .58, p < .01$), 그리고 안정성($r = .57, p < .01$) 순으로 나타났다. 예절은 근면성($r = .59, p < .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신뢰성($r = .56, p < .01$), 안정성($r = .54, p < .01$), 준법성($r = .51, p < .01$), 사교성($r = .49, p < .01$), 그리고 지도성($r = .45, p < .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건강은 준법성($r = .62, p < .01$), 근면성($r = .60, p < .01$), 신뢰성

($r = .55, p < .01$), 안정성($r = .47, p < .01$), 지도성($r = .44, p < .01$), 그리고 사교성($r = .38, p < .01$)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청결은 신뢰성($r = .54, p < .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다음으로 근면성($r = .50, p < .01$), 안정성($r = .45, p < .01$), 준법성($r = .44, p < .01$), 사교성($r = .43, p < .01$), 그리고 지도성($r = .38, p < .0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율의 경우에는 근면성($r = .54, p < .01$), 사교성($r = .46, p < .01$), 안정성($r = .45, p < .01$), 지도성($r = .44, p < .01$), 신뢰성($r = .43, p < .01$), 그리고 준법성($r = .35, p < .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보였다.

4.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이 사회적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각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능력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 위해, 잔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이며 정규분포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Durbin-Watson의

<표 6>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이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316)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R ²	F
사회적 능력 전체	신 의 와 책 임	.569	.410***	.820	.672	127.30***
	예 절	.254	.197***			
	건 강	.183	.152**			
	질 서	.173	.135*			
	자 율	.109	.091*			
신뢰성	신 의 와 책 임	.532	.357***	.711	.506	79.49***
	청 결	.225	.181**			
	예 절	.232	.168**			
	건 강	.204	.158**			
지도성	신 의 와 책 임	.776	.417***	.619	.383	97.10***
	정 리 정 돈	.374	.266***			
근면성	신 의 와 책 임	.495	.258***	.740	.548	75.036***
	건 강	.355	.214***			
	예 절	.298	.167**			
	자 율	.221	.133**			
	정 리 정 돈	.202	.139*			
안정성	신 의 와 책 임	.466	.301***	.646	.417	74.49***
	예 절	.346	.240***			
	질 서	.291	.203**			
사회성	신 의 와 책 임	.753	.418***	.637	.406	71.014***
	예 절	.304	.181**			
	자 율	.227	.146**			
준법성	건 강	.451	.308***	.703	.494	101.497***
	신 의 와 책 임	.485	.287***			
	질 서	.331	.211**			

*p<.05 **p<.01 ***p<.001

d통계치를 확인한 결과, 잔차항들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2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420에서 .758 사이로 1에 가깝고, 분산팽창인수(VIF)가 1.319에서 2.403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 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에서 보듯이 사회적 능력 전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신 의 와 책 임'($\beta=.410, p<.001$)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예 절'($\beta=.197, p<.001$), '건 강'($\beta=.152, p<.01$), '질 서'($\beta=.135, p<.05$), 그리고 '자 율'($\beta=.091, p<.05$)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은 전체 변량 중 67%를 설명하였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인 신뢰성은 '신 의 와 책 임'($\beta=$

.357, $p < .001$), '청결'($\beta = .181, p < .01$), '예절'($\beta = .168, p < .01$), 그리고 '건강'($\beta = .158, p < .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 중 51%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인 지도성은 '신의와 책임'($\beta = .417, p < .001$)과 '정리정돈'($\beta = .266, p < .001$)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전체 변량 중 38%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인 근면성은 '신의와 책임'($\beta = .258, p < .001$), '건강'($\beta = .214, p < .001$), '예절'($\beta = .167, p < .01$), '자율'($\beta = .133, p < .01$), 그리고 '정리정돈'($\beta = .139,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 중 55%를 설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인 안정성은 '신의와 책임'($\beta = .301, p < .001$), '예절'($\beta = .240, p < .001$), 그리고 '질서'($\beta = .203, p < .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 중 42%를 설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인 사교성은 '신의와 책임'($\beta = .418, p < .001$), '예절'($\beta = .181, p < .01$), 그리고 '자율'($\beta = .146, p < .01$)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고, 전체 변량 중 41%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요인인 준법성은 '건강'($\beta = .308, p < .001$), '신의와 책임'($\beta = .287, p < .001$), 그리고 '질서'($\beta = .211, p < .01$)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들은 전체 변량 중 49%를 설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및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본생활습관의 경우에는 7개의 하위요인 가운데서 청결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절, 건강, 질서, 신의와 책임, 자율, 정리정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수

의 선행연구(박명숙, 1999; 박옥희, 2000; 표옥자, 1996)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을 질서, 절제, 청결, 그리고 예절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들 결과와의 단순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생활습관을 일곱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한 엄세진과 정옥분(2006)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예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 신의와 책임, 질서, 자율, 정리정돈 그리고 청결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엄세진과 정옥분(2006)의 초등학교용 기본생활습관 척도를 사용했으나 이들과의 일치된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즉, 현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연구가 절음마단계로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해지리라 본다. 다만, 본 연구에 따르면 정리정돈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정리정돈을 주요 기본생활습관 중 하나로 생각해왔다. 동몽수지의 독서정돈(讀書整頓)에서는 “책상 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책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책을 깨끗이 본다.” 등과 같이 정리정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손지은, 2002). 또한 “먼지 소제하는 일은 시간에 구애하지 말고, 벼루는 5일에 한 번씩 씻고, 이불·요·자리는 3일에 한 번씩 털라. 책꽂이는 흐트러질 때마다 정리하고, 여름철에는 아침저녁으로 방의 벼루를 잡아 깨끗이 하라(사소절의 동규(童規))”에서도 보여지듯, 전통 교육에서는 기본이 바로 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정리정돈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외동아가 많이 생겨나면서, 특히 집안에서의 옷정리, 물건정리, 책상정리 등은 다른 기본생활습관에 비해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여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즉, 아동이 정리정돈을 할 시간에 공

부나 취미생활, 혹은 휴식을 취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로 인해 아동이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기 보다는 어머니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이 대리해서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에 결과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정리정돈의 실천이 낮아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이 바르게 정립되기를 희망한다면 정리정돈의 영역도 부모가 간여하기보다는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가정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능력은 신뢰성, 준법성, 안정성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사교성, 근면성과 지도성은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사회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박성지(2003)의 연구에서는 책임감, 준법성, 근면성은 비교적 높은 반면에 협동성과 자주성은 낮게 나타났다. 김선경(2004)의 연구에서는 책임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근면성, 협동성, 자주성, 준법성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김은순(2005)의 연구에서는 지도성, 신뢰성, 근면성은 높은 반면에 준법성, 안정성, 사교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과에서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역시 연구자마다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다만, 근면성과 지도성이 다른 하위 요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근면성은 부지런하며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고, 지도성은 생산성 있게 일을 조직하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근면성과 지도성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성과 주체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느끼는 불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참을성이 없다’, ‘배려할 줄

모른다’, ‘절제할 줄 모른다’, ‘스스로 하지 못한다’ 등이다. 즉, 끈기와 인내, 그리고 자발성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급이나 집단 사회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므로(김미자, 2003), 후속연구를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집단에서 아동의 근면성과 지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간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건강과 자율 요인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건강과 자율에서 남자 아동들에 비해 여자 아동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1학년 21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현정, 2003)에 따르면 질서와 절제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질서와 절제를 더 높게 실천하고 있었다. 반면에 예절과 청결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영일(1998)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에 비해 청결과 질서에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예절과 절제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2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규수, 2000)에서도 남아보다는 여아가 청결, 질서, 그리고 예절을 더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박옥희(2000), 박정환(1998), 이영일(1998) 그리고 황인옥(2003)의 연구 등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보다 기본생활습관 형성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남아에 비해 여아가 기본생활습관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기본생

활습관에 대해 지각하는 바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가르침을 더 잘 수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경우, 신뢰성, 근면성, 사교성, 준법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보다 더 높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다는 연구들(강상화, 1996; 김미호, 1989; 김은순, 2005; Chen et al., 1997; LaFreniere et al., 2002)을 일부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성차가 없다는 연구들(장현숙, 2006; 조금숙, 2005; Liberman, 1977)도 존재하기에 성차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다만,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은 여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성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Twenge, 1997), 여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남아에 비해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에 대한 외부강화를 많이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한 결과로 사료된다.

셋째, 아동의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이들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기본생활습관의 하위 요인들과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들 간에도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켰다는 연구들(김병국, 2003; 서승덕, 2002; 안미영, 2004)과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인성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연구(박병동, 1999), 그리고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인성교육의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애숙, 2000) 등을 살펴보면 기본생활습관이 인성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시 인성교육은 사회

성 발달과 긴밀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연구(윤혜숙, 2001) 등을 통해서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생활습관을 익힌 아동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정금자, 2001)에서와 같이, 기본생활습관을 잘 형성한 아동은 사회적 능력도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건전한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은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능력 전체 및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생활습관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능력 전체에 대해서는 신의와 책임, 예절, 건강, 질서, 자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전체 변량 중 67%의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의와 책임, 예절, 건강, 질서, 자율 행동이 많아질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 전체와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기본생활습관의 하위 요인은 신의와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신의와 책임이 사회적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위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신의와 책임이란 일상생활에서 책임감있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시키지 않으며, 친구에게 생긴 어려운 일을 도와주려는 행동 등이다. 전통 교육에서도 신의와 책임은 중요시 여겼는데, 격몽요결의

접인장에 따르면 “그가 나에게 이치에 맞도록 가르쳐주고 잘못이 없도록 타일려서 주의시키는 말을 잘 받아들여서 나의 결점을 다스려야 한다”와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지켜야 할 바른 길에 대한 학문과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하며, 성인과 성현의 가르침과 도(道)에 대해서만 말하고 세속의 천한 말이나 정치의 잘잘못과 수령(守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나 다른 사람의 허물 또는 나쁜 점을 일체 입에 담아서 안된다” 등이 있다. 이처럼 동몽교재들에서도 본심을 잃지 말고 도를 행하는 것은 물론 청렴결백하게 자신의 말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덕목, 그리고 좋은 벗을 사귀기 위해 사람을 대하는 방법 등을 가르침으로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장려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런 행동들을 예나 지금이나 기본생활습관의 주요한 요소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생활습관 연구는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습관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전생애 발달적 관점으로 기본생활습관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 간의 직접적 관계를 밝힌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들의 관계를 밝힘으로서 새로운 연구영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기본생활습관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생활습관의 중요

성은 비단 유아와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본생활습관의 주요 덕목들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유사하지만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게 그 내용과 행동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범위를 유아와 아동뿐만 아니라 청년, 나아가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는 아동이 지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기본생활에 대해 다각적인 이해를 위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본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나 기본생활습관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 연구 등이 보다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규영(2004). 저학년에서의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상화(1996). 4, 6, 8세 아동의 장독립-장의존적 인지 양식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00). **바른 생활-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서울: 교육부.
- 김광웅 ·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6.
- 김동환(1992). 건전한 사회성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를 위한 연구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자(2003). 친구 사귀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호(1989).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국(2003).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경(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순(2005). 초등학생의 감성 지능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제봉(1996).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학수 · 이윤수(1975). **생활지도 진단검사**(초, 중, 고학년용).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 김혜영(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1999). 유아의 가정환경 변인과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동(1999). 사회성 집단 훈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지(2003). 가정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현(1983). **학교사회**. 서울 : 배영사.
- 박주희 · 이은혜(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 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보건복지부(1997). **기본생활습관지도**. 서울 : 보건복지부.
- 서승덕(2002). 인성교육을 위한 적응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영(2004). 인성교육 프로젝트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세진 · 정옥분(2006).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3(2), 55-76.
- 윤혜숙(2001). 사회성발달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2005).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인간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상·정서적 발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 방인옥 · 박찬옥(1992). 유치원의 기본생활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회 유아교육연구**, 12(1), 71-90.
- 이은화 · 김희진 · 이승연(1996). 기본생활습관 평가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6(2), 161-177.
- 장현숙(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금자(2001). 유아의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교수 방법. **인문예술논총**, 22, 157-172.
- 정범모(1973). **가치관과 교육**. 서울 : 현심사.
- 정원식(1991).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 조금숙(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5). **유치원 교육 평가연구 : 기본생활습관 평가**.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황인옥(2003). 유치원 교육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her, S. R., & Coie, J. D. (1990).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rne, B. M. (1996). *measuring self-concept across the life span : Issues and instrumentation*. Washington,

-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en, X., Dong, Q., & Zhou, H. (1997). Authoritative and authoritarian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and school performance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1*, 855-873.
- Chen, X., Rubin, K. H., & Sun, Y. (1992).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 : A cross-cultural study. *Child Development, 63*, 1343-1366.
- Elias, M. J. (1997). Prevention in the schools : A framework for effective intervention at multiple levels to promote competence and reduce problem behaviors. 「학교정신 보건사업의 현황과 미래」,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Gelman, R. (1969). Conservation acquisition : A problem of learning to attend to relevant attribut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 167-187.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 Inhelder, B., & Piaget, J. (1958).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 Basic Books.
- Kuhmerker, L. (1991). *The Kohlberg legacy for helping professions*. Birmingham : R.E.P. Books.
- LaFreniere, P. J., Masatak, N., Butovskaya, M., Chen, Q., Dessen, M. A., Atwanger, K., Schreiner, S., Montiroso, R., & Frigerio, A. (2002). Cross-cultural analysis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3*(2), 201-219.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f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 29-44.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3, pp.619-700). New York : John Wiley & Sons.
- Sarason, B. R. (1981). The dimension of social competence : Contributions from a variety of research areas, In J. D. Wine and M. D. Smye (Eds.), *Social Competence*, New York : Guilford.
- Stipek, D. J. (1981).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own and their classmates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404-410.
- Twenge, J. M. (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 A meta analysis. *Sex role, 36*, 305-325.
- William, E. T., & Joseph, V. H. (1996). *Society in focus an introduction to sociology*. New York :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 Wylie, R. C. (1989). *Measures of self-concept*.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Zigler, E., & Trikett, P. K. (1978). I. 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33*(9), 789-798.

2007년 8월 30일 투고 : 2007년 11월 20일 채택